

법정 아동 증언에 관한 연구*

이 미 선†

동양대학교

본 연구는 법정에서 아동 피해자의 진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의 진술 능력, 조사면담 특성 및 반대신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헌을 개관하였다.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 지능, 성격 및 의사소통 능력은 사건에 대한 진술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법정 증언 환경은 아동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초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사 면담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반복적으로 조사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의 지지적인 태도는 아동 진술의 양적,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반면, 유도 질문이나 단답형 질문, 모호하고, 복잡한 질문의 사용은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약화한다. 특히 반대신문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실 판단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 증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법정 증언에 앞서 아동에게 증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아동의 발달, 심리적 특성 및 아동 조사면담 기법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법정 증언을 중개하도록 해야 하며, 넷째, 사법 전문가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 발달 특성을 반영한 증인 신문 절차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법정 증언, 반대신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법정 증언, 아동조사면담, NICHD

* 이 논문은 2022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22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수정 보완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신저자: 이미선,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동양대학교 다산관 5205호

E-mail: msy23@dy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2018헌바254).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은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녹화된 진술 영상 자료로 법정 증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반복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4530). 2023년 7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취약성을 반영한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 중개를 통한 증인신문(성폭력처벌법 제40조),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성폭력처벌법 제36조), 신문 사항 미리 확인(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신설된 법안은 주로 법정 증언의 절차와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증인신문 시점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쇠퇴 및 반복된 조사와 증인신문으로 인한 피해자 진술 오염 가능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게 되었다(Ceci & Bruck, 1993; Goodman & Melinder, 2007; 안재경, 최이문, 2022). 특히, 반대신문은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 및 진술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도 질문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가중할 수 있다(Eastwood & Patton, 2002; Hayes & Bunting, 2013; Zajac, O'Neill, & Hayne, 2012).

아동의 발달 특성과 조사 환경은 사건 관련

아동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정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e.g. Lamb et al., 2018),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아동 법정 증언과 관련한 연구는 아동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문지선, 2023; 박미영, 2022; 박혜림, 2023), 아동의 인지, 발달적 특성 및 증인신문 방식에 따른 아동의 진술 능력에 관한 문헌을 기반으로 반대신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아동의 진술능력, 조사면담 특성 및 반대신문이 아동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법정 증언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지적, 의사소통 특성을 바탕으로 법정 증언으로서 아동의 진술 능력을 확인한다. 둘째, 증언 환경, 조사면담 특성 및 반대신문이 아동 증언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아동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법정 아동 증언 시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아동 증언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요인

아동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완전성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아동에게 외상을 남기지 않으며 자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동 성폭력 사건은 타인에 의해 목격되

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진술은 사건에서 유일한 정보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일반 대중은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아동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Fivush, Gray, & Fromhoff, 1987; Nelson & Fivush, 2004). 특히 20세기 심리학자는 실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약 11~12세가 될 때까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믿음을 가졌으며(Piaget, 1929; Werner, 1948), 아동의 높은 피암시성은 아동 목격자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Whipple, 1912).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진술 능력을 연구한 결과들은 목격자로서 아동의 능력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Goodman, 1984).

연령

연령은 아동이 경험한 사건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인차 요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동은 좀 더 어린 아동에 비해 자신이 경험한 과거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암시에 더 저항적이다(Brown, Lewis, & Lamb, 2015; Bruck & Ceci, 1999; Ceci & Friedman, 2000; Goodman, Aman & Hirschman, 1987; Jack, Leov, & Zajac, 2014). 그럼에도 연구 결과는 매우 어린 아동이라 할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Goodman & Reed, 1986), 어린 아동의 회상이 더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성인과 비교하여 정확성이 낮다는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Tustin & Hayne, 2010).

동일 연령의 아동 간에도 진술 능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Goodman & Reed, 1986), 나이 그 자체는 아동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Goodman & Schwartz-Kenny, 1992). 다만, 연령은 아동 진술 능력과 관련이 있는 다른 특성, 즉 피암시성(Melnyk, Crossman, & Scullin, 2007; Sutherland & Hayne, 2001), 언어능력(Saywitz, Nathanson, Snyder, & Lamphear, 1993), 그리고 지능(Chae & Ceci, 2005; Roebbers & Schneider, 2001)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은 아동의 진술 능력 판단 시 다른 발달적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능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을수록 정보의 정확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정상범위 내라면 인지적 능력은 진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Chae & Ceci, 2005; Roebbers & Schneider, 2001). 특히, 진술 능력에 있어서 지능의 효과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 일반적이며, 6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언어적 지능보다는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Gordon, Ornstein, Nida, Follmer, Crenshaw & Albert, 1993; Roebbers & Schneider, 2001; Schneider, Perner, Bullock, Stefanef, & Siegler, 1999). Roebbers 와 Schneider(2001)의 연구에 따르면, 10세 아동은 지능이 높을수록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졌지만, 6세 아동의 경우 정보의 정확성과 지능점수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Chae와 Ceci(2005)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높은 언어

지능점수를 가진 아동은 낮은 지능점수를 가진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하였으며, 암시적 질문에 좀 더 저항적이었다. 다만,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언어적 지능이 높다고 해서 특별히 더 정확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일부 정보처리 관련 인지적 능력은 아동의 피암시성과 관련이 있는데(Roebers & Schneider, 2005; Scullin & Bonner, 2006), 특히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효율성과 반응억제(inhibitory control) 능력이 높을수록 암시적인 면담 상황에서 좀 더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exander, Goodman, Schaaf, Edelstein, Quas, & Shaver, 2002; Ruffman, Rustin, Garnham, & Parkin, 2001; Karpinski & Sucllin, 2009; Schaaf, Goodman, & Alexander, 1999).

성격

성격이 아동의 진술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줍음(Shyness)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 및 풍부함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이지만 여전히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Roebers 와 Schneider(2001), Pozzulo, Coplan 그리고 Wilson(2005)에 따르면 수줍음이 적은 아동 목격자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사건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실시된 후속 연구에서는 회상된 사건의 정확성에 있어서 수줍음을 타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Chae & Ceci, 2005; Pozzulo, Crescini, Lemieux, & Tawfik, 2007). 다만, 수줍음이 많은 아동은 수줍음이 없는 아동에 비해 면담 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ozzulo et al., 2007). 자존감과 피암시성

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존감과 자기주장이 높은 아동의 경우 암시적 정보를 더 적절히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Bruck & Melnyk, 2004; Howing, Wodarski, Kurtz, & Gaudin, 1990; Kaufman & Cicchetti, 1989; Martin & Beezley, 1977; Oates, Forest, & Peacock, 1985),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감이 높은 아동은 정확성에 대한 높은 자기 확신으로 더 많은 오류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Chae & Ceci, 2005). 일부 연구에서는 불안/회피 애착(Alexander et al., 2002), 사회적 바람직성(Yi, 2015)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피암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진술 능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 비록 아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외향적인 성인은 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했으며, 회상한 정보가 좀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으며, 신경증적 성인은 회상의 양이 적었으며, 좀 더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shman, 1974).

법정에서 아동 증언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기인한 연령, 지능, 성격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진술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면담 시기 및 횟수, 수사 면담 내용 및 방식, 질문방식과 같은 외적 요인이 아동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정 아동 심리학자들은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방식 및 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합의점을 도출하였다(예: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APSAC), 2012; Home Office, 2007; Lamb, Brown,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18; Orbach, Hershkowitz, Lamb, Sternberg, & Esplin et al., 2000; Poole, 2016; Saywitz & Camparo, 2013).

법정증언 환경

아동은 자신이 익숙한 장면이 아닌 법정에서 증언 시 자유회상(free-recall) 질문에 더 적은 정보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답변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la, 1999; Hill & Hill, 1987; Saywitz & Nathanson, 1993). 일반적으로 낮은 환경은 불안을 유발하며, 불안은 기억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 회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Ceci, 1988). 더 나아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회상한 기억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Goodman, Levine, Melton, & Ogden, 1991; Saywitz & Nathanson, 1993), 이에 아동이 증언 자체를 거부하거나, 질문에 최소한의 내용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Saywitz & Nathanson, 1993). 반면 편안한 조사면담 환경은 아동의 불안과 불편감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좀 더 완전한 정보를 이끌 수 있으며(Roberts, Lamb, & Sternberg, 2004), 아동은 따뜻하고 친근한 조사관과 면담 시 유도질문에 좀 더 저항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rnah & Memon, 1996; Davis &

Bottoms, 2002).

면담 지연

사건 발생 이후 최초 면담까지의 시간 경과 는 추후 피해 아동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4-8세 아동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진술하는 것보다 지연된 면담을 하였을 때 더 오랫동안 정확한 기억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assidy & DeLoache, 1995; Jones & Pipe, 2002; Pipe, Sutherland, Webster, Jones, & La Rooy, 2004; Powell & Thomson, 1997; Robert, Lamb, Sternberg, 1999), 이러한 효과는 나이가 어린 아동이나(Hudson & Sheffield, 1998; Peterson, Pardy, Tizzard-Drover, & Warren, 2005; Tizzard-Drover & Peterson, 2004), 좀 더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Fivush, McDermott, Sales, Goldberg, Bahrck & Parker, 2004). 사건 발생 직후 면담은 아동이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이러한 과정의 부재로 관련된 정보 인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Brainerd & Ornstein, 1991; Fivush & Hamond, 1989; Fivush & Schwarzmuller, 1995; Peterson & Rideout, 1998; Tizard-Drover & Peterson, 2004). 실제로 2년 후에 아동은 기존에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새로운 정보의 정확성은 우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정보가 실제 사실을 반영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Fivush, McDermott Sales, Goldberg, Bahrck,

& Parker, 2004; Pipe et al. 2004; Powell & Thomson, 1997). 반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존에 언급했던 내용이 반복되었을 때, 반복된 정보의 정확성은 비교적 최초 진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son, Moores, & White, 2001; Salmon & Pipe, 1997).

증언 횟수

최초 사건에 대한 조사면담이 진행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아동이 사건을 다시 상기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초 진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알려지거나 추가 혐의가 확인되거나,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증언하는 경우이다. 특정 상황에서 추가 면담은 아동의 자발적인 진술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Orbach, Lamb, La Rooy, & Pipe, 2012). 예를 들어, 아동이 최초 면담에서 혐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꺼린다면 추가 면담이 필요할 수 있으며(Cederborg, Lamb, & Laurell, 2007), 사건이 장기간 반복되어 면담 중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거나, 아동이 초기 면담 과정에서 피곤해하거나 지쳐서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추가 면담은 유용할 수 있다(Lamb et al., 2018).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은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Ceci, Huffman, Smith, & Loftus, 1994; Poole & White, 1991; Quas & Schaaf, 2002), 특히 암시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의 면담이 반복되는 경우, 아동의 피암시성은 높아지며 부정확한 정보를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uck & Ceci, 2004; Goodman & Quas,

2008; La Rooy, Lamb, & Pipe, 2009; Malloy & Quas, 2009). 실제 추가 면담 또는 재판하는 동안 아동은 초기 면담 당시 이야기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하거나(Orbach et al., 2012),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는데(Brainerd, Reyna, Howe, & Kingma, 1990), 이처럼 진술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경우, 조사관, 변호사, 법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Lamb et al., 2018).

기존 진술과 반복된 진술 간의 불일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사건을 다시 회상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기억은 단서의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결국 기존에 기억하지 못했던 정보가 회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Howe, Courage, & Bryant-Brown, 1993). 이러한 경우, 반복된 진술에서 확보한 정보는 기존 진술에 비하여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사건 발생 이후 제시된 새로운 정보가 기억에 통합되면서 기존의 기억을 변형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탐지오류(source-monitoring errors)란 자극(정보)이 어떠한 맥락에서 획득된 것인지 그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후 생성된 정보가 최초 기억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출처의 오류로 인한 기억의 오염 및 변형을 의미한다(Powell & Thomson, 1996). 사건의 특정 부분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기억의 흔적을 약화하고, 실제 사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생각이나, 사후 생성된 정보가 최초 기억과 통합되어 원래 기억에 혼입시킬 수 있다(Murayama, Miyatsu, Buchli & Storm, 2014; Powell & Thomson, 1996). 따라서 사건을 경험한 이후, 공식적(예: 수사 및 재판) 또는 비공식적(예: 부모, 주변인)으로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진술 오염의 원인이 된다(Lamb et al., 2018). 출처탐지 오류는 조사관이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 더욱 강해질 수 있으나(Goodman & Quas, 2008; La Rooy, Katz, Malloy, & Lamb, 2010), 조사관이 특별히 진술을 변형하거나 오염시킬 의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조사면담의 특성상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닌든 상관없이 아동에게 사건 내용을 질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아동의 기억에 통합되어 추후 기억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Lamb et al., 2018). 따라서 가급적 아동에 대한 면담은 횟수는 최소화해야 하며, 만일 면담을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면 아동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조사관이 질문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Lamb et al., 2018).

라포형성 및 조사관의 태도

라포형성(Rapport-building)이란 수사면담 동안 아동이 편안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신뢰감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고려된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아동 피해자의 진술 확보에 있어서 라포형성은 불안과 불편감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정보를 이끌 수 있으며(Roberts et al., 2004; Siegman & Reynolds, 1983), 따뜻하고 좀 더 친근한 조사관과 면담 시 아동은 유도질문에 좀 더 저항할 수 있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Carter, Bottoms & Levine, 1996; Cornah & Memon, 1996; Davis & Bottoms, 2002; Roberts et

al., 2004). 또한 라포형성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진술하는 연습을 한 후에 사건 관련 면담 시 정보의 정확성 및 풍부함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Hershkowitz, 2009; Price, Roberts, & Collins, 2013; Sternberg, Lamb, Hershkowitz, Yudilevitch et al., 1997). 라포형성은 아동이 경험한 학대 사건을 외부에 알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Hershkowitz, 2011). 아동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경험한 수치스러운 외상 경험을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Hershkowitz, 2009; Lamb et al., 2008), 효과적인 라포형성은 아동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e.g., Siegman & Reynolds, 1983).

질문내용 및 방식

아동은 여전히 인지적, 언어적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표현방식이나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에서도 미숙함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아동의 발달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한 질문은 아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의 경우 일시나 장소 관련 범 죄사실 진술 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은 “아래”, “위”와 같은 전치사의 사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Stolzenberg & Lyon, 2017).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떤(any)”, “일부(some)”와 같이 수량이나 순서 등을 나타내는 한정사와, “어제(yesterday)”, “이전(before)”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la, 1999; Friedman, 1982; Harner, 1975; Saywitz et al.,

1993). 또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제에 부합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Poole, 2016),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Brown, 1973; Lamb et al., 2018). 반면, 조사관은 아동의 진술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아동에게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동은 조사관의 질문 중 일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질문에 부정확한 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bach & Lamb, 2007; Saywitz & Camparo, 1998).

질문유형은 아동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APSAC, 2012; Home Office, 1992, Orach et al., 2000; Saywitz & Camparo, 2013). 특히 진술권유(Invitation)는 아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에 사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외부인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질문유형으로 고려된다(Lamb, Sternberg, Orbach, Hershkowitz et al., 2002). 반면, 유도 질문은 면담자가 어떠한 답을 원하는지 강하게 암시하는 상태로 질문하거나, 아동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Lamb, Orbach, Sternberg, Hershkowitz & Horowitz, 2000). 유도 질문은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감소시키며, 더 나아가 허위 기억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Cassel, Roebbers, & Bjorklund, 1996; Lamb & Fauchier, 2001), 조사관이 면담 동안 아동에게 지속해서 유도 질문을 사용하면 아동 진술의 신뢰성은 감소할 수 있다(Milne & Bull, 2002). 선택형 질문은 ‘예/아니요’의 답을 요구하거나,

주어진 보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선택형 질문은 유도 질문과 유사하게 아동 진술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Poole & White, 1991), 아동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각 없이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Lamb & Fauchier, 2001; Milne & Bull, 2002). 아동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에서도 질문이 예/아니오 또는 선택형 질문으로 주어지는 경우, ‘잘 모르겠다’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보다 단순히 추측하여 답하거나, 또는 면담자의 의도에 수긍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으며(Lyon & Saywitz, 1999; Nesbitt & Markhm, 1999; Rudy & Goodman, 1991; Waterman Blades, & Spencer, 2000), 심지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답이 없는 질문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Hughes & Grieve, 1980; Waterman et al., 2000). 특히, 조사관이 부정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경우(‘~하지 않았나?’), 아동은 정답과는 무관하게 좀 더 “네”라는 답변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le, Loftus & Rathbun, 1978), 선택형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 아동은 기존에 정확한 답변을 했을지라도, 자신의 답변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uck, Ceci, & Hembrooke, 1998).

반대신문

반대신문이란 증인을 신청한 변호인 또는 검사에 의한 전항 신문이 끝난 이후 대립하는 상대방에 의한 신문 절차로(형사소송법제161조2), 증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증인의 경

협, 기억,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77조). 당사자주의 형사소송에 있어 반대신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Wigmore, 1974). 이에,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끌어내거나, 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증거의 가치를 떨어트려 결국 피고인측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Eichelbaum, 1989; Hampton, & Wild, 2000; Salhani, 1999). 우리나라 형사소송규칙에서도 반대신문은 증인의 경험이나 기억, 표현이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거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에 의해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증명력을 다투는 것으로 정의된다(형사소송규칙 제77조2).

반대신문은 본질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진술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대하여 지속해서 의심을 제기한다. 또한 아동이 자유로운 진술을 허락하기보다, 변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동을 통제하고(Wellman, 1986; Westcott & Page, 2002; Stone, 1998), 주로 '네/아니오' 또는 유도질문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Westcott & Page, 2002; Zajac, R., Gross, J., & Hayne, H. 2003). 이에,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비행, 부정적인 행동을 언급하거나, 만성적인 거짓말쟁이로 피해 아동의 인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정직성을 부정하고, 아동이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Brennan & Brennan, 1988; Davies, Henderson, & Seymour, 1997; Eastwood & Patton, 2002; Eichelbaum, 1989; Klemfuss, Quas, & Lyon, 2014; Westcott & Page, 2002). 이러한 반대신문은 아동에게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Donaldson, 1982, Eastwood & Patton, 2002; Lyon, 2002), 아동은 반대신문을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naldson, 1982, Eastwood & Patton, 2002; Lyon, 2002).

법정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어려운 법적 용어가 포함되거나 복잡하고 모호하며, 빈번하게 부정 의문문(예: ~한 것은 아니지요?), 이중부정 질문(예: ~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중복질문(예: 그곳에 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어디에 간 것인가요?), 두 문장이 결합한 형태의 복문(증인은 그 당시 피고인이 좋아서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으며(Zajac & Cannan, 2009), 아동은 사실상 해당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nnan, 1995, Brennan & Brennan, 1988; Lamb et al., 2018). 이와같은 조사방식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권고되는 조사면담 방식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Zajac et al., 2012), 실제 반대신문은 사건에 대한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Jack & Zajac, 2014; O'Neill & Zajac, 2013), 법정에서 아동을 신문하는 것이 실제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Zajac & Hayne, 2003a). 실제로, 반대신문 시 아동의 증언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반대신문 동안 이전 진술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다(Zajac & Hayne, 2003b; Zajac & Cannan, 2009). 더욱이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대부분 유도 질문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Zajac & Cannan, 2009).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은 나이가 더 많은 아동에 비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대신문 과정에서 기존 답변을 수정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Zajac & Hayne, 2003a), 실험연구 결과 반대신문 과정 동안 아동 답변의 정확율은 41% (Turtle & Wells, 1988)에서 50% 수준에 불과하였다(Zajac & Hayne, 2003b).

법정에서 아동 증언 시 권고사항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은 부적절한 조사 환경 및 조사방식은 아동 피해자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 진실발견에도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아동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21도14530). 반대신문권 보장과 아동 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형사사법 전문가는 물론 아동보호기관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 및 아동 법정 진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아동 증언 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정 증언 환경

법정 증언은 아동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로 남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법정에서 증언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반대신문을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묘사하고, 추후 다시 피해자가 되더라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Eastwood & Patton, 2002; Prior, Glaser, & Lynch, 1997), 피해자의 부모 역시 자기 자녀를 다시는 법정 증언대에 세우지 않겠다고 응답했다(Alaggia, Lambert, & Regehr, 2009; Cashmore & Bussey, 1996; Eastwood & Patton, 2002; Powell, Wright, & Hughes-Scholes, 2011). 우리나라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1), 19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증인신문 장소 및 참여 방식에 특례를 두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이 이루어진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고, 영상, 음향은 한 방향으로 법정에서 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3). 이는 아동이 법정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아동이 낯선 환경에 증언하는 데 있어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법정 밖에서 영상매체를 통한 증언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은 영상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법정에서 진술할 때보다 불안이 감소하였으며(Law Reform Commission, 1992; Murray, 1995), 유도질문이나 구체적인 질문이 제시되는 상황에서도 더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Tobey, Batterman-Faunce, Orcutt et al., 1998; Nathanson & Saywitz, 1993; Saywitz & Nathanson, 1993). 이에, 비대면 증언 절차는 아동이 법정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

고, 아동이 낮은 환경에 증언하는 데 있어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물리적 환경이 부적절한 질문과 조사 면담 방식에서 기인한 위험성까지 해결해 줄 수 없으며, 반대신문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아동은 여전히 법정 증언 경험을 여전히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식할 수 있다(Zajac et al., 2012). 또한,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아동 법정 증언은 영상녹화 조사가 이루어진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하였는데, 단순히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법정 증언이 이루어진다는 점만으로 아동 친화적 증인신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성폭력처벌법 제29조2),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아동 조사는 1회 실시된다(박노섭, 조은경, 이미션, 2012). 이를 고려할 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전 성폭력 피해 조사를 위해 1회 방문했던 수사기관의 진술 녹화실을 아동이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로 인식할지는 의문이 든다. 아동의 법정 증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소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질문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증언 시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Carter, et. al., 1996; Cornah & Memon, 1996; Davis & Bottoms, 2002; Roberts et al., 2004; Hershkowitz, 2011). 이에, 아동이 실제 법정 증언 장소 및 질문자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는 소개 과정 및 라포형성 절차(Hershkowitz, 2009; Lamb et al., 2008; Siegman & Reynolds, 1983)를 포함한 비대면 증인신문 환경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 증언 교육

아동에게 증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정 증언의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es, Devere, & Verbitsky, 2004; Plotnikoff & Woolfson, 2009). 해당 교육은 신문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질문유형들을 선행적으로 답해보는 연습을 포함하고 있다(Righarts, Jack, Zajac & Hayne, 2014; Saywitz, Snyder, & Nathanson, 1999; O'Neil & Zajac, 2013). 개방형 질문은 질문에 어떠한 정보를 이야기할지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답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Yi & Lamb, 2018; Lamb et al., 2018). ‘일화적 기억훈련(episodic memory training)’ 또는 ‘진술훈련(narrative practice)’은 기본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경험한 과거 사건을 묻는 진술권유 질문유형에 익숙하기 위해 설계되었다(Lamb, Orbach, Hershkowitz, Horowitz, & Abbott, 2007). 일화적 기억훈련 또는 진술훈련 동안 아동은 추후 사건 관련 진술권유 질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관련 정보를 정교화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된다 (Lamb et al., 2008; Sternberg et al., 1997; Yi & Lamb, 2018). 이에, 진술 연습을 한 아동은 연습이 없는 아동보다 실제 사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유도질문에 더욱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et al., 2008; Sternberg et al., 1997; Yi & Lamb, 2018)

추가적으로, 아동 피해자 조사에 앞서, “뭐든지, 사소한 것까지” 전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Kulkofsky, Wang, & Ceci, 2008)과 자신이 실

제 경험한 사실만 이야기해야 하며, 상상하거나 추측해서는 안 되며, 질문이 이해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 “이해가 안 돼요” 또는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Brubacher, Poole, & Dickinson, 2015)을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추후 사건 관련 조사 시 아동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정 증언에 앞서 아동에게 증언 절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증언 방식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증언 교육 및 방법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면담은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심리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는 물론 성폭력 수사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어린 아동은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한정적이며(Brown, 1973), 빠른 기억 소실 및 오염, 질문에 대한 이해 능력의 한계 및 질문자의 유도에 대한 취약성으로(Carter et al., 1996; Davis & Bottoms, 2002; Imhoff & Baker-Ward, 1999; Quas, Wallin, Papini, Lench, & Scullin, 2005), 통상적인 증인신문 방법을 통해서도 실제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아동 법정 증언을 대비하여 법원행정처에서는 전문조사관 제도 신설하여 전문조사관이 증개하여 법관이나 변호인을 대신에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질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안 제26조의 2 신설). 전문조사관 제도는 19세 미만 및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이하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라고 함)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조사 및 증인신문을 중개하도록 한 제도이다(안 제26조의 2 신설). 전문조사관은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면담 기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외부 전문가의 증개 및 보조 없이도 아동·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수사 및 증언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동 법정 증언이 가질 수 있는 위협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안타깝게도 2023년 7월 개정된 법안에는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에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성폭력처벌법 제37조), 더불어 공판준비 절차 과정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들은 신문 사항과 신문 방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다만, 질문내용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조력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했다고 해서 아동으로부터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Zajac et al. 2012). 또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준비 절차 과정에서 신문 사항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능 사항으로 실제 아동 법정 증언 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아동으로부터 양질의 진술을 확보하고 올바른 양형 판단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훈련된 조사관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Zajac et al. 2012).

국외의 경우 전문조사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동 조사관을 위한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아동 조사관은 아동 발달 관련 이론교육, 실무에 대한 평가, 비판적 사고 및 조사면담 프로토콜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추가로 전문가 피드백과 사례 발표 세션을 갖는다(Freeman & Morris, 1999; Warren et al., 1999). 캐나다의 경우 NICHD 아동 조사면담 집중 훈련이 1주에 걸쳐 진행된 이후 수개월에 걸친 사례 발표 및 피드백 세션이 진행되었다(Cyr & Lamb, 2009). 호주의 교육 프로그램 역시 유사하다. 질문유형에 이해, 아동 발달 특성, NICHD 조사면담 프로토콜 등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Benson, & Powell, 2015). 노르웨이의 경우 역시 아동 조사면담 관련 이론교육은 물론 사례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인 전문가의 피드백과 슈퍼비전이 진행된다 (Thoresen, Lonnum, Melinder & Magnussen, 2009; Baugerud, Johnson, Hansen, Hagnussen, & Lamb, 2020). 이를 종합할 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아동의 인지 발달적 특성, 질문유형 및 조사 면담 프로토콜에 대한 이론교육 및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피드백 및 슈퍼비전이 공통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발달과 인지적 측면, 조사면담 특성 및 조사면담 프로토콜에 대한 이론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피드백 및 슈퍼비전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 전문가에 대상 교육과 훈련

변호인, 검사 등 사법 전문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역시 중요하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권고되는 조사면담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아동 진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내용과 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 측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 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Andrews & Lamb, 2016; Klemfuss et al., 2014). 또한 법원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아동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O'Kelly, Kebbell, Hatton, & Johnson, 2003; Zajac & Cannan, 2009). 변호인, 검사, 법관 등 사법 전문가들은 법과 법적 의사결정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아동의 발달과 인지적 특성에 반영한 조사방식 및 부적절한 질문이 아동 진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있다. 부적절한 방식의 증인신문은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실제적 진실발견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다양한 연구들은 아동 조사면담에 있어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아동 발달과 인지적 특성,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면담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감독자의 지도하에 실시되는 수련 및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yr & Lamb, 2009; Cyr, McDuff, & Trotier-Sylvain, 2012; Freeman & Morris, 1999; La Rooy, Brubacher, Aromäki-Stratos, 2015; Lamb et al., 2002; Price & Roberts, 2011; Warren, Woodall, Thomas, Nunno et al., 1999). 다만, 사법 전문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증인신문 절차

및 규정 도입

법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사용되는 원인 중 일부는 아동의 발달과 진술 능력에 대한 오해와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사실상 반대신문의 본질적 속성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신문은 아동 피해자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거나,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과정이므로(Henderson, 2002), 일부 변호인들은 특정 질문이 아동에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아동을 비난하거나 의심하고, 의도적으로 아동이 답변하기 어렵게 질문을 복잡하게 하는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ichelbaum, 1989).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법관이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은(O'Kelly et al., 2003; Zajac & Cannan, 2009) 아동 대상 질문 및 면담 방식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으나(Eastwood & Patton, 2002), 한편으로는 법관이 편파적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Kebbell, Hatton, Johnson, & O'Kelly, 2001; O'Kelly et al., 2003). 따라서, 단순히 사법 전문가들 대상 교육 및 훈련만으로는 법정 증언이 아동 피해자 증언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제도적으로 증인 신문 절차 및 아동 증언 시 허용되는 질문의 범위 및 질문방식을 제한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중요하게는 반대신문의 목적이 증명력을 탄핵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주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이 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Bala, 1999, Pipe & Henaghan, 1996, Westcott & Jones, 1999, Whitcomb, 2003). 또한 질문은 아

동의 나이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아동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 아동 친화적 신문 절차에서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은 증인 신문 절차 및 피해자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안내문 및 교육을 통하여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목적과 그 절차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신문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법정 증언은 자신이 경험한 범죄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이를 증언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수반한다. 증언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아동은 고통스러운 법정 증언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변호인 등의 유도 질문에 사실과 무관하게 수궁할 가능성이 있다(Zajac et al., 2012). 이에 아동의 증인신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하며, 이에, 반대신문 이전 질문 목록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질문을 제외하여 증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현행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판준비 절차를 통해 신문사항을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제40조의2). 이는 부적절한 질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가 실제 아동 증언을 보호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문 사항을 판단의 주체 및 확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권능 사항(즉 할 수 있다)이 아닌 의무 사항(즉, 해야한다)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인신문 시점이다. 법원 증언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시간의 지연에 따른 기억의 손실 및 오염 가능성이다. 즉,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 아동은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일관성을 훼손하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약화한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엘리아 등 나라에서는 면담 지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 처음 아동이 진술한 시점에서 반대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Gupta, 1994; Hanna, Davies, Henderson, Crothers, & Rotherham, 2010; Zajac et al. 2012 재인용). 비록 최초 진술시점에 반대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예상되나, 최소 진술 시점에서 피의자가 아동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재판과정에서 아동이 반대신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논 의

헌법재판소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성폭력 특별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21도14530). 학계, 법조계, 실무계 및 시민단체의 큰 우려 속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의 장이 형성하였으며, 진술인으로서 미성년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식하

고,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및 훈련된 전문가 조사원칙 관련 개정안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법정에서 아동 증인신문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피해 아동이 경험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2차 피해만의 문제는 아니며, 법정 증언이 아동으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초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정 증언까지 시간의 지연 및 반복된 증언은 피해자 진술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정보를 받아 드려 실제적 진실발견에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반대신문 과정이다. 반대신문은 그 속성상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그 원래의 목적으로 일반 성인은 물론 법정 전문가 역시 재판과정 중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Eastwood & Patton, 2002; Prior et al., 1997).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변호인의 질문을 무조건 수용하여 신문을 종료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도질문과 단답형 질문으로 신뢰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적절히 저항하고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Zajac et al., 2012).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는 반대신문 이전 질문내용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했다(성폭력 처벌법 제40조의2). 다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면담은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는 물론 성폭력 수사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에,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질문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큰 우려 속에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이 법정 증언이 시행되었다. 실제 법정 증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정 증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법정 증언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은 실제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제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박노섭, 조은경, 이미선 (2013).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 *경찰청*
- 박혜림 (2023).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과 반대신문권의 재구성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47(1), 67-89.
- 박미영 (2022).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3. 자 2018 헌바 524 결정. *동아법학*, (95), 119-146.
- 문지선 (2023).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진술절차 도입방안. *법학연구*, 34(4), 233-286.
- 안재경, 최이문 (2022).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33(2), 127-161.
- Alaggia, R., Lambert, E., & Regehr, C. (2009). Where is the justice? Parental experiences of the Canadian justice system in cases of child sexual abuse. *Family Court Review*, 47, 634-649.
- Alexander, K. W., Goodman, G. S., Schaaf, J. M., Edelstein, R. S., Quas, J. A., & Shaver, P. R. (2002). The role of attachment and cognitive inhibition in children's memory and suggestibility for a stressful ev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3, 262-290.
-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2012). Practice guidelines: Investigative interviewing in cases of alleged child abuse.
- Andrews, S. J., & Lamb, M. E. (2016). How do lawyers examine and cross examine children in Scotland?.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30(6), 953-971.
- Bala, N. (1999). Child witnesses in the Canadian criminal courts: Recognizing their capacities and need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5, 323-354.
- Baugerud, G. A., Johnson, M. S., Hansen, H. B., Magnussen, S., & Lamb, M. E. (2020). Forensic interviews with preschool children: An analysis of extended interviews in Norway (2015-2017).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34(3), 654-663.
- Benson, M. S., & Powell, M. B. (2015). Evaluation of a comprehensive interactive training system for investigative interviewers of children.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1(3), 309.
- Brainerd, C. J., & Ornstein, P. A. (1991). *Children's memory for witnessed events: The developmental backdrop*. In *The Suggestibility of*

- Children's Recollections, Jun, 1989, Cornell U, Ithaca, NY, US; This volume is based in part on the aforementioned confer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ainerd, C. J., Reyna, V. F., Howe, M. L., Kingma, J., & Guttentag, R. E. (1990). The development of forgetting and reminiscenc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109*.
- Brennan, M., & Brennan, R. (1988). *Strange language: Child victim witnesses under cross-examination*. Wagga Wagga, Australia:CSU Literary Studies Network.
- Brennan, M. (1995). The discourse of denial: Cross-examining child victim witnesses. *Journal of Pragmatics, 23*, 71-91.
- Brown, H. D. (1973). Affective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3(2)*, 231-244.
- Brown, D. A., Lewis, C. N., & Lamb, M. E. (2015). Preserving the past: An early interview improves delayed event memory i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hild Development, 86(4)*, 1031-1047.
- Brubacher, S. P., Poole, D. A., & Dickinson, J. J. (2015). The use of ground rules in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children: A synthesis and call for research. *Developmental Review, 36*, 15-33.
- Bruck, M., & Ceci, S. J. (1999).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mem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1)*, 419-439.
- Bruck, M., & Ceci, S. (2004). Forensic developmental psychology: Unveiling four common misconcep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3(6)*, 229-232.
- Bruck, M., & Melnyk, L.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suggestibility: A review and synthesi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947-996.
- Bruck, M., Ceci, S. J., & Hembrooke, H. (1998). Reliability and credibility of young children's reports: From research to polic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53(2)*, 136.
- Carter, C. A., Bottoms, B. L., & Levine, M. (1996). Linguistic and socioemotional influenc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Law and Human Behavior, 20*, 335-358.
- Cashmore, J., & Bussey, K. (1996). Judicial perceptions of child witnesses. *Law and Human Behavior, 20*, 313-334.
- Cassel, W. S., Roebbers, C. E. M., & Bjorklund, D. F. (1996). Developmental patterns of eyewitness responses to repeated and increasingly suggestive ques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1*, 116-133.
- Cassidy, D. J., & DeLoache, J. S. (1995). The effect of questioning on young children's memory for an event. *Cognitive Development, 10(1)*, 109-130.
- Ceci, S. J. (1988). Scientists' attitudes toward data sharing.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13(1-2)*, 45-52.
- Ceci, S. J., & Bruck, M. (1993).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03.
- Ceci, S. J., & Friedman, R. D. (2000).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 Scientific research and legal implications. *Cornell L. Rev., 86*, 33.
- Ceci, S. J., Huffman, M. L. C., Smith, E., &

- Loftus, E. (1994). Repeatedly thinking about a non-event: Source misattributions among preschooler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3, 388-407.
- Cederborg, A. C., Lamb, M. E., & Laurell, O. (2007). *Delay of disclosure, minimization, and denial of abuse when the evidence is unambiguous: A multivictim cas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hae, Y., & Ceci, S. J. (2005).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recall and suggestibility: The effect of intelligence, temperament, and self perception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9(4), 383-407.
- Cornah, C. E., & Memon, A. (1996). *Improving children's testimony: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 Cyr, M., & Lamb, M. E. (2009).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ICHD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when interviewing French-speaking allege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in Quebec. *Child Abuse & Neglect*, 33(5), 257-268.
- Cyr, M., Dion, J., McDuff, P., & Trotier Sylvain, K. (2012). Transfer of skills in the context of non suggestive investigative interviews: Impact of structured interview protocol and feedback.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6(4), 516-524.
- Dale, P. S., Loftus, E. F., & Rathbun, L. (1978). The influence of the form of the question on the eyewitness testimony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7(4), 269-277.
- Davies, E., Henderson, E., & Seymour, F. (1997). In the interests of justice? The cross-examination of child complainants of sexual abuse in criminal proceeding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4, 217-229.
- Davies, E., Devere, H., & Verbitsky, J. (2004). Court education for young witnesses: Evaluation of the pilot service in Aotearoa, New Zealand.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1, 226-235.
- Davis, S. L., & Bottoms, B. L. (2002).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 test of the underlying mechanism. *Law and human behavior*, 26(2), 185-215.
- Donaldson, M. (1982). Conservation: What is the ques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3, 199-207.
- Eastwood, C., & Patton, W. (2002). *The experiences of child complainants of sexual abus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ustralia: Report to the Criminology Research Council.
- Eichelbaum, T. (1989). Cross-examination. In T. Eichelbaum, T. Arnold, & D. Wilson (Eds.), *Mauer's fundamentals of trial techniques* (pp. 199-247). Auckland, New Zea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Fivush, R., & Hamond, N. R. (1989). Time and again: Effects of repetition and retention interval on 2 year olds' event recall.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7(2), 259-273.
- Fivush, R., & Schwarzmueller, A. (1995). Say it once again: Effects of repeated questions on children's event recall.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4), 555-580.
- Fivush, R., Gray, J. T., & Fromhoff, F. A. (1987).

- Two-year-old talk about the past. *Cognitive development*, 2(4), 393-409.
- Fivush, R., McDermott Sales, J., Goldberg, A., Bahrick, L., & Parker, J. (2004). Weathering the storm: Children's long term recall of Hurricane Andrew. *Memory*, 12(1), 104-118.
- Freeman, K. A., & Morris, T. L. (1999). Investigative interviewing with childre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training program for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Child abuse & Neglect*, 23(7), 701-713.
- Friedman, W. J. (1982).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time*. New York: Academic Press.
- Goodman, G. S., & Melinder, A. (2007). Child witness research and forensic interviews of young children: A review.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2(1), 1-19.
- Goodman, G. S., & Quas, J. A. (2008). Repeated interviews and children's memory: It's more than just how man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6), 386-390.
- Goodman, G. S., & Reed, R. S. (1986). Age differences in eyewitness testimony. *Law and human behavior*, 10(4), 317-332.
- Goodman, G. S., & Schwartz-Kenney, B. M. (1992). *Why knowing a child's age is not enough: Influences of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factors on children's testimony*. In H. Dent & R. Flin (Eds.), *Children as witnesses* (pp. 15-32). John Wiley & Sons.
- Goodman, G. S. (1984). Children's testimony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40(2), 9-31.
- Goodman, G. S., Aman, C., & Hirschman, J. (1987). *Child sexual and physical abuse: Children's testimony*. In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 1-23). Springer, New York, NY.
- Goodman, G. S., Levine, M., Melton, G. B., & Ogden, D. W. (1991). Child witnesses and the confrontation clause: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rief in Maryland v. Craig. *Law and Human Behavior*, 15(1), 13-29.
- Goodman, G. S., Tobey, A. E., Batterman-Faunce, J. M., Orcutt, H., Thomas, S., Shapiro, C., et al (1998). Face-to-face confrontation: Effects of closed-circuit technology on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and jurors decisions. *Law and Human Behavior*, 22,165-203
- Gordon, B. N., Ornstein, P. A., Nida, R. E., Follmer, A., Crenshaw, M. C., & Albert, G. (1993). Does the use of dolls facilitate children's memory of visits to the docto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7(6), 459-474.
- Gupta, T. (1994). Child witnesses - An Australian perspective. *Child Abuse Review*, 3, 179-182.
- Hampton, N. J., & Wild, J. (2000). *Cross-examination*. In B. Robertson (Ed.), *Introduction to advocacy* (pp. 233-264). Wellington, New Zealand: New Zealand Law Society.
- Hanna, K., Davies, E., Henderson, E., Crothers, C., & Rotherham, C. (2010). *Child witnesses in the New Zealand criminal courts: A review of practice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uckland, New Zealand: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Institute of Public Policy.
- Harner, L. (1975). Yesterday and tomorrow: Development of early understanding of the terms. *Developmental psychology*, 11(6), 864.
- Hayes, D., & Bunting, L. (2013). 'Just be

- Brave'-The Experiences of Young Witnesses in Criminal Proceedings in Northern Ireland. *Child Abuse Review*, 22(6), 419-431.
- Henderson, E. (2002). *Persuading and controlling: The theory of cross-examination in relation to children*. In H. L. Westcott, G.M. Davies, & R. Bull (Eds.),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pp. 279-294).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 Hershkowitz, I. (2009). Socioemotional factors in child sexual abuse investigations. *Child Maltreatment*, 14(2), 172-181.
- Hershkowitz, I. (2011). *Rapport building in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ren*.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109-128.
- Hill, P. E., & Hill, S. M. (1987). Videotaping children's testimony: An empirical view. *Michigan Law Review*, 85, 807-833.
- Home Office. (1992). *Memorandum of good practice on video recorded interviews with child witnesses for criminal proceedings*. HM Stationery Office. London
- Home Office (2007).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Revised)*. London: Author.
- Howe, M. L., Courage, M. L., & Bryant-Brown, L. (1993). Reinstating preschoolers' mem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5), 854.
- Howing, P. T., Wodarski, J. S., Kurtz, P. D., & Gaudin, J. R. Jr., (1990). The empirical b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skills training with maltreated children. *Social Work*, 35, 460-467.
- Hudson, J. A., & Sheffield, E. G. (1998). Déjà vu all over again: Effects of reenactment on toddlers' event memory. *Child Development*, 69(1), 51-67.
- Hughes, M., & Grieve, R. (1980). On asking children bizarre questions. *First Language*, 1, 149-160.
- Imhoff, M. C., & Baker-Ward, L. (1999). Preschoolers' suggestibility: Effects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language and interviewer supportiven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407-429.
- Jack, F., & Zajac, R. (2014). The effect of age and reminders on witnesses' responses to cross-examination-style questioning.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3(1), 1-6.
- Jack, F., Leov, J., & Zajac, R. (2014). Age related differences in the free recall accounts of child, adolescent, and adult witness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8(1), 30-38.
- Jones, C. H., & Pipe, M.-E. (2002). How quickly do children forget events? A systematic study of children's event reports as a function of dela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6, 755-768.
- Karpinski, A. C., & Scullin, M. H. (2009). Suggestibility under pressure: Theory of mind, executive function, and suggestibility in pre-school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 749-763.
- Kaufman, J., & Cicchetti, D. (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s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 Keibell, M. R., Hatton, C., Johnson, S. D., &

- O'Kelly, C. M. E. (2001).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s witnesses in court: What questions should lawyers ask?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9*, 98-102.
- Klemfuss, J. Z., Quas, J. A., & Lyon, T. D. (2014). Attorneys' questions and children's productivity in child sexual abuse criminal trial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8*(5), 780-788.
- Kulkofsky, S., Wang, Q., & Ceci, S. J. (2008). Do better stories make better memories? Narrative quality and memory accuracy in preschool childre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2*(1), 21-38.
- La Rooy, D., Brubacher, S. P., Aromäki-Stratos, A., Cyr, M., Hershkowitz, I., Korkman, J., ... & Lamb, M. E. (2015). The NICHD protocol: A review of an internationally-used evidence-based tool for training child forensic interviewers. *Journal of Criminological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2), 76-89.
- La Rooy, D., Katz, C., Malloy, L. C., & Lamb, M. E. (2010). Do we need to rethink guidance on repeated interview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6*(4), 373.
- La Rooy, D., Lamb, M. E., & Pipe, M.-E. (2009). *Repeated interviewing: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risks and potential benefits*. In K. Kuehnl & M. Connell (Eds.), *The evaluation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A comprehensive guide to assessment and testimony* (pp. 327-361). John Wiley & Sons Inc.
- Lamb, M. E., & Fauchier, A. (2001). The effects of question type on self-contradictions by children in the course of forensic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 483-491.
- Lamb, M. E., Brown, D. A.,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18). *Tell me what happened: Questioning children about abuse*. John Wiley & Sons.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es*. Hoboken NJ and Chichester: Wiley.
- Lamb, M. E., Orbach, Y., Hershkowitz, I., Horowitz, D., & Abbott, C. B. (2007). Does the type of prompt affect the accuracy of information provided by alleged victims of abuse in forensic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9), 1117-1130.
- Lamb, M. E., Orbach, Y., Sternberg, K. J., Hershkowitz, I., & Horowitz, D. (2000). Accuracy of investigators' verbatim notes of their forensic interviews with alleged child abuse victims. *Law and Human Behavior, 24*(6), 699-708.
- Lamb, M. E., Sternberg, K. J., Orbach, Y., Hershkowitz, I., Horowitz, D., & Esplin, P. W. (2002). The effects of intensive training and ongoing supervision on the quality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alleged sex abuse victim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3), 114-125.
- Law Reform Commission. (1992). Children's evidence. Closed circuit TV (No. 63). ACT, Australia: Law Reform Commission.
- Lishman, W. A. (1974). The speed of recall of pleasant and unpleasant experiences. *Psychological Medicine, 4*(2), 212-218.

- Lyon, T. D., & Saywitz, K. J. (1999). Young maltreated children's competence to take the oath.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1), 16-27.
- Lyon, T. D. (2002). Applying suggestibility research to the real world: The case of repeated question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5*, 97-126.
- Malloy, L. C., & Quas, J. A. (2009). Children's suggestibility: Areas of consensus and controversy. In K. Kuehnle & M. Connell (Eds.), *The evaluation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A comprehensive guide to assessment and testimony* (pp. 267-297). John Wiley & Sons Inc.
- Martin, H. P., & Beezley, P. (1977). Behavioral observations of abused children.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19*, 373-387.
- Melnik, L., Crossman, A. M., & Scullin, M. H. (2007).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memory*. In M. P. Toglia, JD Don, DF Ross, & R. CL Lindsay (Eds.), *The handbook of eyewitness psychology*. Vol. I: Memory for events (pp. 401-427).
- Milne, R., & Bull, R. (2002). Back to basics: A componential analysis of the original cognitive interview mnemonics with three age group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6*(7), 743-753.
- Murayama, K., Miyatsu, T., Buchli, D., & Storm, B. C. (2014). Forgetting as a consequence of retrieval: a meta-analytic review of retrieval-induced forgetting. *Psychological bulletin, 140*(5), 1383.
- Murray, K. (1995). *Live television link: Evaluation of its use by child witnesses in Scottish criminal trials (Crime and Justice Research Findings No. 4)*. Edinburgh, Scotland: The Scottish Office,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Nelson, K., & Fivush, R. (2004). The emergence of autobiographical memory: a social cultural development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11*(2), 486.
- Nesbitt, M., & Markham, R. (1999). Improving young children's accuracy of recall for an eyewitness ev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449-459.
- O'Kelly, C. M. E., Kebbell, M. R., Hatton, C., & Johnson, S. D. (2003). Judicial intervention in court cases involving witnesse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8*, 229-240.
- O'Neill, S., & Zajac, R. (2013). The role of repeated interviewing in children's responses to cross examination style question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4*(1), 14-38.
- Oates, R. K., Forest, D., & Peacock, A. (1985). Self-esteem of abuse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9*, 159-163.
- Orbach, Y., & Lamb, M. E. (2007). Young children's references to temporal attributes of allegedly experienced events in the course of forensic interviews. *Child development, 78*(4), 1100-1120.
- Orbach, Y., Hershkowitz, I., Lamb, M. E., Sternberg, K. J., Esplin, P. W., & Horowitz, D. (2000). Assessing the value of structured protocols for forensic interviews of alleged child abuse victims. *Child abuse & neglect, 24*(6), 733-752.
- Orbach, Y., Lamb, M. E., La Rooy, D., & Pipe, M. E. (2012). A case study of witness

- consistency and memory recovery across multiple investigative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6(1), 118-129.
- Peterson, C., & Rideout, R. (1998). Memory for medical emergencies experienced by 1-and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059.
- Peterson, C., Moores, L., & White, G. (2001). Recounting the same events again and again: Children's consistency across multiple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4), 353-371.
- Peterson, C., Pardy, L., Tizzard-Drover, T., & Warren, K. L. (2005). When initial interviews are delayed a year: Effect on children's 2-year recall. *Law and Human Behavior*, 29, 527-541
- Piaget, J. (1929).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Rowman & Littlefield*, 213, 506-513
- Pipe, M.-E., & Henaghan, M. (1996). Accommodating children's testimony: Legal reforms in New Zealand. *Criminal Justice and Behaviour*, 23, 377-401
- Pipe, M. E., Sutherland, R., Webster, N., Jones, C., & Rooy, D. L. (2004). Do early interviews affect children's long term event recall?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7), 823-839.
- Plotnikoff, J., & Woolfson, R. (2009). *Measuring up*. Evaluating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commitments to young witnesses in criminal proceedings. London, UK: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 Poole, D. A., & White, L. T. (1991). Effects of question repetition on the eyewitness testimony of children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975-986.
- Poole, D. A. (2016). *Interviewing children: The science of conversation in forensic contex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well, M. B., & Thomson, D. M. (1996). Children's memory of an occurrence of a repeated event: Effects of age, repetition, and retention interval across three question types. *Child Development*, 67, 1988-2004.
- Powell, M. B., Thomson, D. M., & Dietze, P. M. (1997). Memories of separate occurrences of an event: Implications for interviewing children. *Families in Society*, 78, 600-608.
- Powell, M. B., Wright, R., & Hughes-Scholes, C. H. (2011). Contrasting the perceptions of child testimony experts,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regarding individual child abuse interview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8, 33-43.
- Pozzulo, J. D., Coplan, R. J., & Wilson, J. (2005). Not too 'shy' to help catch a thief: Recall memory of shy versus non-shy witness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8), 1361-1372.
- Pozzulo, J. D., Crescini, C., Lemieux, J. M., & Tawfik, A. (2007). The effect of shyness on eyewitness memory and the susceptibility to misinform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7), 1656-1666.
- Price, H. L., & Roberts, K. P. (2011). The effects of an intensive training and feedback program on police and social workers'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3(3), 235.
- Price, H. L., Roberts, K. P., & Collins, A. (2013).

- The quality of children's allegations of abuse in investigative interviews containing practice narrativ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2(1), 1-6.
- Prior, V., Glaser, D., & Lynch, M. A. (1997). Responding to sexual abus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hild Abuse Review*, 6, 128-140.
- Quas, J. A., & Schaaf, J. M. (2002). Children's memories of experienced and nonexperienced events following repeated interview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3, 304-338.
- Quas, J. A., Wallin, A. R., Papini, S., Lench, H., & Scullin, M. H. (2005). Suggestibility, social support, and memory for a novel experience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1, 315-341.
- Righarts, S., Jack, F., Zajac, R., & Hayne, H. (2014).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cross-examination style questioning: the effects of delay and subsequent questioning. *Psychology, Crime & Law*, 21(3), 274 - 296.
- Roberts, K. P., Lamb, M. E., & Sternberg, K. J. (1999). Effects of the timing of postevent information on preschoolers' memories of an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3(6), 541-559.
- Roberts, K. P., Lamb, M. E., & Sternberg, K. J. (2004). The effects of rapport building style on children's reports of a staged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2), 189-202.
- Roebbers, C. M., & Schneider, W.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eyewitness recall: The influence of intelligence and shynes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5(1), 9-20.
- Roebbers, C. M., & Schneider, W. (2005). The strategic regulation of children's memory performance and suggest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1(1), 24-44
- Rudy, L., & Goodman, G. S. (1991). Effects of participation on children's reports: Implications for children's testimony.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27.
- Ruffman, T., Rustin, C., Garnham, W., & Parkin, A. J. (2001). Source monitoring and false memories in children: Relation to certainty and executive function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0(2), 95-111.
- Salhany, R. E. (1999). *Cross-examination: The art of the advocate* (2nd ed.). Ontario, Canada: Butterworths Canada Ltd.
- Salmon, K., & Pipe, M. E. (1997). Props and children's event reports: The impact of a 1-year dela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5(3), 261-292.
- Saywitz, K., & Camparo, L. (1998). Interviewing child witnesse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Abuse & Neglect*, 22(8), 825-843.
- Saywitz, K. J., & Camparo, L. B. (2013). *Evidence-based child forensic interviewing: The developmental narrative elaboration interview*. Oxford University Press.
- Saywitz, K. J., & Nathanson, R. (1993). Children's testimony and their perceptions of stress in and out of the courtroom. *Child Abuse and Neglect*, 17, 613-622.
- Saywitz, K., Nathanson, R., Snyder, L., & Lamphear, V. (1993). *Preparing Children for the Investigative and Judicial Process: Improving Communication, Memory and Emotional Resiliency*:

-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Department of Psychiatry, Harbor-UCLA Medical Center.
- Saywitz, K. J., Snyder, L., & Nathanson, R. (1999). Facilitating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he child witnes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1), 58-68.
- Schaaf, J. M., Goodman, G. S., & Alexander, K. (1999). *Effects of repeated questions on children's memory and suggestibility about true and false events*. In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Schneider, W., Perner, J., Bullock, M., Stefanef, J., & Siegler, A. (1999). *Development of intelligence and thinking*. In F. E. Weinert & W. Schneider (Eds.). Individual development from 3 to 12 (pp. 9-28).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ullin, M. H., & Bonner, K. (2006). Theory of mind, inhibitory control, and preschool-age children's suggestibility in different interviewing contex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3*, 120-138.
- Sieglman, A. W., & Reynolds, M. A. (1983). Self-monitoring and speech in feigned and unfeigned l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6), 1325.
- Sternberg, K. J., Lamb, M. E., Hershkowitz, I., Yudilevitch, L., Orbach, Y., Esplin, P. W., & Hovav, M. (1997). Effects of introductory style on children's abilities to describe experiences of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1*, 1133-1146.
- Stolzenberg, S. N., & Lyon, T. D. (2017). 'Where were your clothes?' Eliciting descriptions of clothing placement from children alleging sexual abuse in criminal trials and forensic interview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22*(2), 197-212.
- Stone, M. (1998). *Cross-examination in criminal trials*. London: Butterworths.
- Sutherland, R., & Hayne, H. (2001). Age-related changes in the misinformation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9*(4), 388-404.
- Tizzard Drover, T., & Peterson, C. (2004). The influence of an early interview on long term recall: A comparative analysi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6), 727-743.
- Thoresen, C., Lonnum, K., Melinder, A., & Magnussen, S. (2009). Forensic Interview with Children in CAS Cases: A Large-Sample Study of Norwegian Police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 999-1011.
- Turtle, J. W., & Wells, G. L. (1988). *Children versus adults as eyewitnesses: Whose testimony holds up under cross-examination?* In M. M. Gruneburg, P. E. Morris, & R. N. Sykes (Eds.). Practical aspects of memory: Current research and issues (Vol. 1, pp. 27-33).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Ltd.
- Tustin, K., & Hayne, H. (2010). Defining the boundary: age-related changes in childhood amnesia.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1049.
- Walker, A. G., & Warren, A. R. (2013). *The language of the child abuse interview: Asking the questions, understanding the answers*. In True And False Allegations Of Child Sexual Abuse (pp. 153-162). Routledge.
- Warren, A. R., Woodall, C. E., Thomas, M.,

- Nunno, M., Keeney, J. M., Larson, S. M., & Stadfeld, J. A. (1999).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a training program for interviewing child witnesse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2), 128-135.
- Waterman, A. H., Blades, M., & Spencer, C. P. (2000). Do children try to answer nonsensical ques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11-226.
- Wellman, F. L. (1986). *The art of cross-examination* (4th ed.). New York: Dorset Press.
- Werner, H. (1948). *Comparative psychology of mental developmen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Westcott, H. L., & Jones, D. P. H. (1999). Annotation: The abuse of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497-506.
- Westcott, H. L., & Page, M. (2002). Cross-examination, sexual abuse, and child witness identity. *Child Abuse Review, 11*, 137-152.
- Whipple, G. M. (1912). Psychology of testimony and report. *Psychological Bulletin, 9*(7), 264.
- Whitcomb, D. (2003). Legal interventions for child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 149-157.
- Wigmore, J. H. (1974). *Evidence in trials at common law*. Boston, MA: Little, Brown & Company.
- Yi, M., & Lamb, M. E. (2018). The effects of narrative practice on children's testimony and disclosure of secre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32*(3), 326-336.
- Yi, M. (2015) *Interviewing allegedly abused child victim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 Zajac, R., & Cannan, P. (2009). Cross-examination of sexual assault complainants: A developmental comparison.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6*, S36-S54.
- Zajac, R., & Hayne, H. (2003a). I don't think that's what really happened: The effect of cross-examination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9*, 187-195.
- Zajac, R., & Hayne, H. (2003b). *Cross-examination of child witnesses: A help or a hindrance to jurors?* Edinburgh, UK: Presentation at the biennial combined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and the Europ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 Zajac, R., Gross, J., & Hayne, H. (2003). Asked and answered: Questioning children in the courtroom.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0*(1), 199-209.
- Zajac, R., & Hayne, H. (2006). The negative effect of cross-examination on children's accuracy: Older children are not immun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0*, 3-16.
- Zajac, R., O'Neill, S., & Hayne, H. (2012). Disorder in the courtroom? Child witnesses under cross-examination. *Developmental Review, 32*, 181-204.

1 차원고접수 : 2024. 02. 11.

심사통과접수 : 2024. 06. 03.

최종원고접수 : 2024. 06. 17.

Children's Testimony in Court: a Critical Review of Its Implications

Misun Yi

Dongyang University

When a child becomes a victim of sexual violence, the victim's statement often serves as the sole confirmation of what happened. However, the integrity of the statement is subject to the child's age, cognitive abilities, personality traits, and communicative aptitude. Furthermore, the unfamiliar setting of a court testimony may induce stress and anxiety in child victim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accuracy and concreteness of their statements, especially when the investigative interview is significantly delayed or repeated. Empi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n affirming demeanor on the part of the investigator positively influences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a child's statements. Conversely, the use of leading, succinct, or equivocal and intricate questions attenuates the precision and specificity of the statement. Notably, media scrutiny exacerbates the predicament for child victims, fostering skepticism regarding the reliability of their statements and imposing psychological duress. In light of these challenges, recommendations to mitigate secondary harm and secure meticulous and precise statements from children include, firstly, conducting court testimonies within environments tailored to the needs of juveniles to mitigate unfamiliarity-induced anxiety. Secondly, providing comprehensive education to children on court procedures and testimony methodologies preceding the actual testimony. Thirdly, engaging seasoned investigators possessing expertise in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erview techniques to mediate court testimonies. Moreover, perpetual educational initiatives are imperative for judicial experts. Finally, the formulation of legislation pertaining to witness examination procedures, cognizant of the distinct features of child development, is deemed necessary.

Key words : *Child testimony in court, a Cross examination, Child victim, NICHD*